

세계화時代의 韓·中·日 經濟協力 強化 方案¹⁾

司空 壹(世界經濟研究院 理事長)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소위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에 따른 情報處理技術과 人工위성과 광케이블 등과 같은 초고속 통신기술과 수송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세계 전체가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빠른 속도로 統合되는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 혹은 “지구촌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면의 세계화는 더욱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는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통합되는 소위 “깊은 統合”(deep integration) 단계로 들어서 있다. 특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시장은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 금융시장으로 통합되는 금융의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누구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 보다, 이에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이 세계화의 이점은 최대한 활용하되, 그 단점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 내지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도 지혜를 모아 상호 협력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체제적 불안(systemic uncertainty)을 극복 내지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金融의 세계화와 韓·中·日 協力

금융의 세계화는 자본이 필요한 나라에 충분한 자본을 供給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급격한 외부자본의 유출입에 수반되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여러 나라가 뼈저리게 경험한 외환위기와 그 “전염”은 바로 이 금융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들 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들과의 相乘作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와 한국 등 여타 경제와의 實물경제 측면의

1) 이 글은 1999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협력위원회 제36차 총회 기초연설을 정리한 것임.

상호의존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997년 7월초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태국의 바로 이웃나라들은 물론이려니와 한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 빠른 속도로 전염된 것은 금융의 세계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외환보유국으로서 이러한 전염을 통한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들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를 위시한 아세아경제 전체의 경기심체에 따라 일본 경제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미국 통화당국이 일부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했었다.

이번에 겪은 소위 아시아 金融危機가 금융의 세계화와 有關한 것이라면, 世界化 趨勢가 加速化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유사시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의 빠른 위기탈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여타 나라로 전염되는 것을 최대한 遮斷할 수 있는 지구촌 전체 차원의 새로운 금융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제 금융체제는 50여년 전에 고안된 소위 브레튼 우드(Bretton Woods)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금융의 세계화 시대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소위 “새로운 지구촌 금융체제”(new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금융체제를 주도해서 창출해 낼만한 강력한 지구촌 리더십(global leadership)의 不在로,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은 지 2년이 넘은 오늘에 이르도록 기존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는 정도의 선에 머무르고 있을 뿐, 금융의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금융체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特히 주요 기축통화간의 환율안정 유지 문제, 헤지 펀드(hedge fund) 등 거액의 단기자금 유출입에 따른 체제적 불안정 문제, 민간자금 공여자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분담 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적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은 이번에 換難을 겪은 한국과 태국을 비롯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속도로 취해지고 있다. 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적절한 金融監督體制의 구축, 금융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透明性 提高, 국제수준에 맞는 금융기관 및 기업 회계제도의 도입 등 중요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세계화 시대에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구촌 경제 전체의 체제적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한, 이러한 개별국가 次元의 구조적 개혁들은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充分條件은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구촌 전체가 못다한 일을 보완하여 세계경제의 체제적 불안요인을 제거 내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ASEAN+3 회의에 참석한 韓·中·日 정상들이 3국 頂上會議를 定例化하고 韓·中·日 3國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 뿐 아니라, 지구촌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韓·中·日 3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협의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간에 상존하는 상호불신으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큰 장애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일본간의 미묘한 관계는 3국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약화시키는 쪽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주변국가들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도 금번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지역협력체에 속한 국가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그 나라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전염 과정을 통해 인근 지역은 물론 여타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긴밀한 지역협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수습을 빨리 할 때 그 혜택은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도 한·중·일 3국이 함께 노력하여 먼저 자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주변국의 이해를 증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에 3국 頂上들이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첫 출발을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한·중·일 경제협력체의 構築 이전에라도 3국 재무장관 회의를 먼저 정례화 하여 3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함께 금융관련 정책 및 자본 유출입에 관한 정보교환 등 금융·통화 관련 3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緊急信用支援體制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1997년 9월에 처음 제기되었다 주변국의 반대에 부딪쳐 묻혀버린 아시아通貨基金(AMF)의 설립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금융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통화기금으로서 AMF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신설될 AMF는 IMF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信用支援에 따른 조건은 IMF 긴급구제금융 조건들과 상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한 원칙과 그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리더십(leadership) 발휘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韓·中·日 3국간에는 아직도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서 비롯된 상호불신과 거부감이 상당 수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절실한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未來指向의인 상호신뢰 기반을 구축하여 3국 국민들 공히 이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이 앞장서서 좀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추진중에 있는 新 미야자와 構想은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이 틀림없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東北亞開發銀行(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의 설립을 통해 중국의 동북부 지역과 일부 연안지역, 몽고, 그리고 極東러시아와 남·북한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생산기술과 프로젝트 관리능력 뿐 아니라, 경제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생생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많은 인력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적자원과 축적된 개발경험과, 일본의 자본과 첨단기술이 중국이 갖고 있는 무한한 노동력과 시장과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synergy)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 분명하다.

잘 아시다시피 리더십 발휘를 통한 소위 公共財(public goods) 제공에는 상당한 비용과 부담이 따르게 된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상당기간 미국은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에 필요불가결한 국제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될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GATT의 창설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패전국의 경제재건과 제3세계의 많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방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자국시장을 널리 개방해서 이들 나라에게 대미수출의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만약 일본이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감내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未來指向

의인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해 준다면, 현재 한·중·일 3국간의 지역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경계심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세계화 趨勢속의 地域主義 擴散과 韓·中·日 協力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 추세의 심화속에서 地域主義 강화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GATT 24條 관련 지역협정으로 GATT/ WTO에 통보되었거나 이미 실시중에 있는 협정 수는 1999년 현재 총 82건에 이르며, 그 중 61건이 1990년대에 들어와 이룩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그 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多極化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냉전체제가 종료된 후 미국이 지역주의 확산을 크게 반대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중·일 3국만은 아주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력체인 APEC 이외에는 다른 지역협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중국이 곧 가입하게 될 WTO와 APEC, ASEM, 그리고 ASEAN+3 등의 多者間 協力體에서의 상호협조와 공동립장 정리 등의 소지가 없는 실정이다. 금번 마닐라에서의 3국 정상 회동을 계기로 한·중·일 3국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거의 1/4, 그리고 세계 GDP의 거의 1/5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3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3국간 긴밀한 경제협정이 이루어 질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너무나 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3국간의 투자협정, 자유무역지대 창설 방안 등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맺는 말

문자 그대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內包하고 있다. 금번에 겪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세계화, 특히 금융의 세계화가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세계화의 가속화란 세계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

한, 개별국가 차원의 경제구조 개편과 각종 개혁의 필요성, 지역차원에서의 경제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지구촌 전체 차원의 세계경제 안정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금번 위기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금번 위기를 이 지역은 물론이러니와 지구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금번 위기를 이 지역 경제협력체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